

이루마, 빌보드 '역주행' ... 15주째 1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음반이 빌보드 클래식 앨범 차트에서 '장기 역주행' 하고 있다.



▲ 이루마. 사진=yiruma.com

2011년 발매된 이루마의 데뷔 10주년 기념 음반 '더 베스트 레미니센트' (The Best Reminiscent 10th Anniversary)는 지난 16일 발표된 빌보드 클래식 앨범 차트에서 통산 15주째 1위를 기록했다.

'더 베스트 레미니센트'는 '리버 플로우스 인 유' (River Flows in You), '키스더 레인' (Kiss the Rain) 등 이루마의 대표곡을 재연주해 수록한 음반이다.

이루마는 최근 연합뉴스의 유튜브 영어뉴스 채널 '코리아 나우' (KOREA NOW)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앨범의 인기 이유에 대해 "재녹음한 트랙을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다"며 "모두가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주는 음악을 찾으려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신이 선보인 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

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지금의 나를 만든 노래"라며 '리버 플로우스 인 유'를 꼽았다.

에일리 등 대중가수와의 활발히 작업해 온 그는 "저와 협업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며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기도 한다"고 전했다. 가장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에 대한 질문에는 방탄소년단

(BTS)을 언급하며 "그들은 지금 최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에 데뷔 20주년을 맞는 이루마는 "특별한 계기인 만큼 스페셜 앨범을 계획하고 있다"며 신곡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최종 목표는 음악 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루마는 유니버설뮤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달 새 미니앨범 '룸 위드 어 뷰' (Room With A View)도 선보였다.

팝계,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에 환호

미국 대법원이 15일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고 판결하자 팝스타들은 SNS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이모지나 사진을 띄우고 판결을 환영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 wikipedia.org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과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모든 변호인에게 감사드립니다. 평등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진전이다."는 글을 썼다.

커밍아웃한 쌍둥이 듀오 테건 앤드 새라는 페이스 북에 "대단하고 뜻밖의 승리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평생을 싸워왔다"며 "몇몇은 그 판결을 기다리다 죽었다. 앞으로 싸움이 너무 많이 남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축하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셀레나 고메즈는 해당 판결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며 "좋은 뉴스"라는 말을 덧붙였고 아리아나 그란데, 벤 플랫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 팝스타들은 최근 미국에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두 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며 흑인 및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마돈나는 인스타그램에 흑인 트랜스젠더 패션모델 도미니크 잭슨이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한 연설 동영상에 공유했다. 'lgbtqlivesmatter' (LGBTQ의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메건 더 스탬리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무지개색으로 염색한 뒤 흑인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지지 시위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빌보드가 이날 전했다.

EXID 솔지, 12년 만에 솔로 싱글



▲ 솔지.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녀 'EXID'의 메인 보컬인 솔지가 12년 만에 솔로 싱글을 내놓는다.

18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솔지는 다음달 9일 새 싱글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를 발매한다. 솔지의 마지막 솔로 싱글은 EXID 합류 전인 2008년 내놓은 '처음 그 느낌처럼'이다. 발라드 듀오 투앤비와 솔로로 활동한 그는 EXID 보컬 트레이너로 있다가 EXID 메인보컬이자 리더로 영입됐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는 장마철 여름을 겨냥한 촉촉한 감성의 발라드다. 거미, 뉴이스트 W, 에이핑크, 허각 등과 작업한 룩원(LOOGONE)이 작곡에 참여했다.

씨제스는 "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는 솔지의 깊은 감정선과 곡 해석이 탁월하게 돋보이는 발라드"라고 소개했다.

솔지는 2006년 보컬 듀오 '투앤비(2NB)'로 데뷔했다. 싱글 '첫번째 향기'로 신인 답지 않은 가창력을 뽐냈다. 2012년 선보인 EXID로 재데뷔,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대표곡 '위아래(Up Down)', '아 예(Ah Yeah)', '핫 핑크(Hot Pink)' 등의 히트곡을 냈다.

1 불	한	2 당			3 금	품	
침		4 선	5 견	지	명		6 퇴
7 번	8 호		인		9 간	10 소	화
	11 부	츠				강	
	견				12 빙	상	
13 파	자	14 마		15 기		16 태	17 도
악		18 천	신	만	19 고		승
	20 성	루			21 막	바	지



숨은그림찾기 정답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